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은 다운타운이랑은 좀 떨어진 남부 쪽에 위치하여 관광을 위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식사할 곳이나, 관광할 곳도 버스를 타고 조금 나와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학교 내 학생들이 많고 여러 나라와 함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서인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하지만 사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유학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과의 만남은 별로 없어서 영어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은 문화와 아주 간단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은 같이 수업을 듣는 일본인 학생들이 발음을 잘 못해서 너무 수업이 쉽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그래도 타국의 학생들과 E.O(English Only)수업 방침에 따라 수업하는 것은 좋았지만 반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따라서 수업이 달라지는데 본인의 반은 한국학생들이 주로 한국어를 해서 수업을 통해 영어가 향상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p> <p>또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활동으로 노래나 춤을 시켰는데, 영어와 관련이 없다고 연습시간을 주지 않으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p>
필드트립	<p>필드 트립 중 밴쿠버 투어는 어차피 모든 학생이라면 다운타운에 꼭 가게 되는데 그 것을 트립의 형태로 의미 없이 빈칸 채우기를 하게 시킨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p> <p>하지만 카약 체험을 한 것은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특히나 먼 곳까지 가는 데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것이 편리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버스는 너무 좁고 불편했습니다. 카약에는 너무 타기 때문에 선스크린과 선글라스가 필수이고, 수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체험 후 너무 팔이 아프기 때</p>

	<p>문에 파스나 휴족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휘슬러 트립은 따뜻한 옷과 바람막이가 필수입니다. 본인이 갔을 때는 너무 추워서 산 위에 풍경이 눈에 안들어 올 정도 였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식사하면 맛있긴 하지만 따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여름이지만 9월이 다가오니 3주 중 마지막 주는 너무 추웠습니다. 한국 날씨만 생각해서 얇은 원피스도 챙겨갔는데 입지도 못했고, 현지에서 기모 후드와 가디건을 사서 입었습니다.</p> <p>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낮에는 얇은 티가 필요한데 햇볕이 강해서 선크림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p>
안전	<p>길거리에 마리화나를 피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거리만 피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모두가 정말 친절합니다. 밤 늦게 다닐 경우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무서운데 사람이 없어서 위험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p>
숙소	<p>홈스테이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일단 홈스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족이 아주머니밖에 없고 그분은 너무 바쁘고 아프셔서 제가 원하는 새로운 경험이나 특별한 활동,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고 규칙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습니다. 특히 여름이라 자주 씻고 싶는데 10분밖에 못 씻게 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v) 기타 ()</p> <p>아침은 시리얼이었고, 점심은 샌드위치였습니다. 사먹기에는 학교 내의 식당이나 밴딩머신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매일 같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p> <p>홈스테이 아주머니와 너무 불편하고, 학교 수업 후 관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밖에서 매번 식사를 했는데, 한끼에 패스트 푸드를 먹어도 15000원 이상 씩 매우 비쌉니다.</p>
교통	<p>다운타운 쪽은 교통이 매우 좋으나, 집 쪽에 다니는 것은 딱 1개 버스 49번로 평일 8시 넘으면 잘 안 다니고, 주말은 30분~1시간에 한대 씩 다녀서 타면 10분~20분 거리이지만 버스를 1시간씩 기다렸습니다.</p> <p>좋은 곳에 위치하여 금방 집에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교통이 정말 불편해서 남보다 일찍 나오고 오래 걸리고 그랬네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60만원	매일 저녁식사
쇼핑	60만원	아울렛 및 다운타운 쇼핑
교통비	10만원	Zone 2이동 비 및 페리이용
기타	20만원	입장료 및 유흥비
합계	15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확실히 정하고 확실한 계획 후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계획 짜는 것에 조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세면, 수건, 화장품)은 챙겨 가세요. 호텔처럼 주는 줄 알았는데 사서 쓰라고 해서 괜히 돈 들었네요.

날씨를 정확히 알아서 알맞은 옷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 날씨인 줄 알고 갔다고 너무 추워서 생각보다 옷에 지출이 많았어요.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파악을 하고 가야지 기대에 반하는 그들의 행태와 행동에 실망을 덜하게 되는 것 같고요. 홈스테이 선물로는 그냥 간단한 먹을 거리(ex,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괜히 비싼 거 사갔는데 떨떠름해 하는 모습보고 너무 실망하고, 가족한테 요리해주려고 했는데 홈스테이 가족과 저 모두가 요리해서 먹을 시간 따위 없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 이 전에도 홈스테이 경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기억으로 한번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그냥 혼자 돈 들여서 여행가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한가지 좋았던 것은 학교 수업을 통해 타국가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해지고 영어보다도 일본어를 더 쓰고 온 것 같지만 그래도 타언어를 말해

보고 연습해볼 수 있던 점이었어요.

향후 영어는 그냥 혼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잘하는 학생한테는 좌절감을 느끼고, 대부분 못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로만 말해서 쓰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일본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는데 그들과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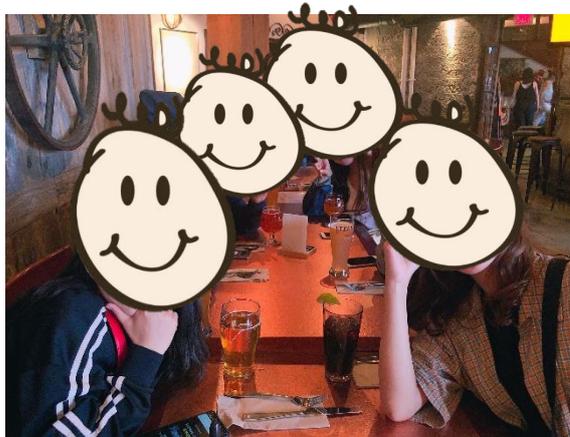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졸업식 날 많이 정들었던 일본 친구들과함께



PNE(플레이랜드) 놀이기구 타며



다함께 스팀웍스에서 한잔하며



사무라이 스시 먹으러 가서



퀸 엘리자베스 공원에서 간호학과 친구들과
(랑가라 컬리지에서 산 널싱 후드입고)



유럽 같은 빅토리아 국회의사당